

로보티즈 (108490/KQ)

고령사회 + 높은 가격 파이터

SK증권 리서치센터

매수(신규편입)

목표주가: 27,000 원(신규편입)

현재주가: 21,800 원

상승여력: 23.9%

2025년 자율주행 로봇 진짜 온다

로보티즈는 로봇 액츄에이터와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전문업체다. 3Q24 기준 매출액은 233억 원(액츄에이터 229 억원, 자율주행 로봇 3 억원), 영업이익은 -22 억원(액츄에이터 47 억원, 자율주행 로봇 -69 억원)을 기록했다. 액츄에이터를 글로벌/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연구기관, 자율주행 로봇은 호텔체인/지자체/병원/건설사에 공급한다.

2023년 11월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에 계절별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2025년은 서비스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 F&B 배달, 2) 주거 단지 내 택배 및 식음료 배달 서비스가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Target F&B 시장만 놓고 봐도 약 8~10조원 시장으로 추정하는데, 국내 1위 배달 사업자가 수개월 내로 서울/수도권 로봇 배달 서비스를 정식 런칭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시장은 로봇의 침투율이 워낙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로보티즈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판단이다.

고령사회라는 흐름과 싸우는 방법

10년 후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하며 로봇 신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 로봇이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상품/제품의 가격을 낮출 필요도 있다.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하는건 LONG 고령사회다. 서비스 로봇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내수 업종과 정반대의 주가 흐름을 예상한다. 향후 최소 10년간의 지속될 트렌드에 올라타야 한다.

밸류에이션 및 투자의견

2025년 매출액 412억원(+28.7%, YoY), 영업이익 -13억원(14억원 적자 축소)를 예상한다. 추정 매출액 412억원에 로봇 업종 평균 PSR 8.66(2023년)을 적용, 목표주가 27,000원을 제시하고 투자의견 매수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로봇 업종 내 기업이 대부분 적자 상태지만, 향후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PSR 멀티플이 로봇 업종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이 사실이 2025년 말부터 로보티즈 자율주행 부문이 꾸준히 분기 기준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실적 및 투자지표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2024E	2025E	2026E
매출액	억원	224	259	291	321	412	502
영업이익	억원	-9	-22	-53	-27	-13	37
순이익(지배주주)	억원	7	-3	-14	-48	-35	-1
EPS	원	64	-21	-105	-364	-266	-6
PER	배	386.0	-1,056.5	-291.8	-59.8	-82.0	-3,532.6
PBR	배	4.0	3.1	4.0	3.1	3.2	3.2
EV/EBITDA	배	217.8	6,191.2	-125.6	-342.5	596.2	48.1
ROE	%	1.1	-0.3	-1.5	-5.2	-3.9	-0.1



Analyst
박찬술

rightsearch@sks.co.kr
3773-9955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1,305 만주
시가총액	2,846 억원
주요주주	
김병수(외2)	31.02%
LG전자	7.37%

Stock Data

주가(24/11/29)	21,800 원
KOSDAQ	678.19 pt
52주 최고가	33,450 원
52주 최저가	16,210 원
60일 평균 거래대금	37 억원

주가 및 상대수익률



1. 왜 배달 로봇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

(1) 고령화와 인력 수요/공급 불균형 트렌드에 올라타야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현실로 받아드려야 한다. 인구구조 문제는 복합적인 난제이며, 극단적인 조치 없이 추세적인 인구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구조적이 문제가 내수 시장 수요/공급 불균형을 더 키울 것이다. 로봇이 이런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도 낮추는 것이다.

소비 수요: 소비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내수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 중이다. 인구(Q) 하락율의 하락 곡선의 기울기가 중위 소득(P) 증가율의 상승 곡선보다 더 가파르다. 이민 정책 변경이나 대규모 외국인 여행객 유입이 없다면 내수 시장이 더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수요가 축소되는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서비스 가격이 중요해질 것이다.

노동 공급: 노동 시장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빠르고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힘들다. 과거에는 대체로 청년층이 숙련도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업무에 단기근무 형태로 접근했다. 그러나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호가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자들도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을 꺼려한다. 단순 + 단기 서비스 노동 시장이 지탱되기 힘든 상황이다.

Market: F&B 배달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 수요와 노동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 높아진 물가 수준 때문에 소비자는 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여러 배달앱이 할인된 가격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격을 선호하면서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1인 가구 비중이 매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평균적인 주문당 객단가가 오르기도 구조적으로 어렵다(객단가가 낮다면, 배달 수수료도 낮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라이더가 돈이 안되는 소액 근거리 주문을 안 받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특수 주문을 처리해줄 라이더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배달 서비스 업계는 해결 방안을 로봇에서 찾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1.2km 내 근거리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수요가 적다. 이동 비용을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거리/저수익 배달 시장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먼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배달 로봇이 경제적으로 말이 된다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배송 지역이 정해지면 초기 투자 비용을 볼 수 있는 mapping 비용은 전기료를 포함해서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사람의 배송 관련 수수료를 분석해 보면 미국 기준 현재 마일당 \$1.6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동일 구간에 배송 로봇을 활용하면 마일당 비용이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로봇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현재 F&B 배달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파트너 산재에 대한 고민이다.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기상 할증, 거리제한, 주문중단, 고용보험 가입 등을 수용한 이유이다. 하지만 기본 배달료 인상과 프로모션 지양 등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위험 상황/비선호 지역 주문을 로봇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로봇 배달 성장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해외 사례 참고

지금까지는 규제가 실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의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22년 정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로봇업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LG 전자/KT/만도/우아한형제들/현대로보틱스/유진로봇/로보티즈/시스콘/클로봇/트위니/언맨드솔루션/원익로보틱스/도구공간/힐스엔지니어링/뉴빌리티/티라로보틱스/포테닛/마로로보테크)를 출범시켰다.

그때부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23년에 여러 규제들이 풀리게 된다. 당해 3월에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고, 4월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었다. 10월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실외 이동 로봇에 보행자와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었다. 또 11월에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시행되면서 안정 인증을 받은 로봇의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경찰청), 개인정보법(개보위), 생활물류법(행안부) 개정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부처간 협력이 계속 이루어졌다. 로봇이 보행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 속도 15km/h 로 제한되었지만, 동시에 실외이동로봇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 공원녹지법(국토부) 시행령 50 조에 따라, 무게 30kg 이상 로봇의 공원 출입과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었지만, 2024년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공원 내 운행도 가능케 되었다. 이제 로봇이 보행자가 가는 대부분의 길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은 보행자 지위를 획득하고 1년간 자율주행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축적하는 시기였다. 24년 12월이 되면 로봇이 보도를 주행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약 1년이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edge 케이스의 연구가 중요한 만큼 계절별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했다. 2025년부터는 로봇 배달 업체들이 여러 파트너들과 손잡고 서비스를 상용화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시장 성장 속도에 대해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글로벌 1위 로봇 배달 업체 Starship 은 2016 년도에 미국/영국 등에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2018년도부터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약 2,000~3,000대 사이의 FLEET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전세계(영국, 독일, 덴마크,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80 개 사이트)에서 누적 6 백만건의 이상의 주문을 처리했다. Starship 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실외형 로봇 판매가 분기 평균 100 대 수준 이상에서 유지되는 것이 일종의 판매 벤치마크**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Startship 의 성장 속도이자, 국내 업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BEP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Starship 외에도 Kiwibot/COCO/ZMP/Yandex 등이 활발하게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상위 업체들은 각각 수천대의 로봇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업체별로 평균 수십만건의 이상의 배달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Uber Eats 와 협력 중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erve Robotics(Nasdaq-SERV)의 경우 FLEET 사이즈를 현재 100대에서 내년 2,000대로 확대하기 위해 최근 3세대 배달 로봇을 출시했다. Magna 와 협력해서 악천후와 폭우에도 견딜 수 있게 외관이 강화되었고, 최고 속도를 11.3kmh 에서 17.7kmh 높였다. 경사로에서 배터리 방전이 되는 사태에 대비해 자동 급정지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 Alphabet 이 보유하고 있는 Wing Aviation 과 함께 수개월 내로 Texas Dallas 에서 Air Drone + Delivery Robot 퀵 배달 서비스를 출시 예정이다. Serve 는 2025 말까지 매출액 700~900 억원, 배달 건당 50% 이상의 공헌이익률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Serve Robotics 도킹 스테이션으로 물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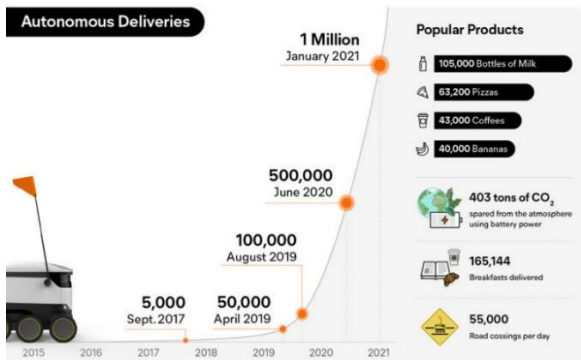
자료: Serve Robotics, SK 증권

Wing Aviation 과 배달 콜라보



자료: Serve Robotics, SK 증권

Starship Tech 21년도 누적 배달건수 1백만건 마일스톤 달성



자료: Starship Tech, SK 증권

California Castro St. Starship 실사



자료: Starship Tech, SK 증권

경쟁업체별 사업 비교

Brand	추정 투자유치 규모	매출액(연간)	서비스 지역/국가	총주행거리/데이터	건당 배달 가격	로봇대수	사업내용 요약
로보티즈	90 억원(LG 전자)	11억원 전사 기준 291억원	국내, 일본, 북미	1만 건 이상의 배달	미정	약 60 대	로봇 전용 부품 및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Dilly(배민)	-	배달의민족 전체 매출 기준 연 2조 원 이상	국내	-	-	-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빙 로봇 기업
모빈	7 억원	19 억원	국내	-	-	-	장애물극복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
뉴빌리티	274.5 억원 이상	4.2 억원	국내 및 전 세계 22개 도시	1만 건 이상의 배달	1,000 원	70~110 대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개발하는 기업
스타십테크	2억 3,000 만 달러	-	미국, 유럽 등 20개국 이상	1400 만 km 이상 / 600 만 건 이상의 배달	\$1.99~\$3.99	2,000 대 이상	미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 전문기업
키위봇	2,400 만 달러	-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	15 만 건 이상의 배달	\$2.00~\$3.99 (약기당 \$40~\$159)	1,200 대 이상	미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 전문기업
Cyan Robotics (COCO)	5,690 만 달러	-	미국	10 만 건 이상의 배달	객단가의 15%	1,000 대 이상	미국 자율주행 배송 로봇 전문기업

자료: 각사, 언론사 취합, SK 증권

국내 상황을 보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외 FLEET 은 모든 업체들은 합쳐도 200대 미만으로 보고 있다. 로보티즈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 뉴빌리티는 24년 8월 누적 1만건 이상의 주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내 로봇 자율주행 관련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해외 업체 대비해서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역으로 성장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국내 사업자들이 최대한 주행 데이터를 빠르게 늘려 edge 케이스들을 연구할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본다.

로봇 실생활 침투 속도에 핵심적인 요소는 로봇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률을 좌우할 핵심 bottleneck 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규제도 풀렸지만, 사람들이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없다면 로봇 산업 성장은 불가능에 가깝다. NAVER LABS 에서 로봇의 인터페이스가 인간 친화적이도록 공을 들이고, TESLA 가 Robotaxi 이벤트를 파티로 포장하는 이유이다.

사람들과 로봇의 교류가 일상화되는 것도 중요하다. 로봇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커피를 주문하면 길거리에서 가끔 호기심에 로봇을 막아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배송 서비스가 지연되기 때문에 산업 성장을 위해서 심리적 허들을 넘는 시간도 필요해 보인다. 로봇 기업들이 원격 조정이나 음성 제어로 소통하면서 이런 edge 케이스들을 피해 노하우를 누적할 것으로 본다.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로봇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BYD(+화웨이) 같은 중국 자율주행 파워하우스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중국 본토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져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발전을 앞당기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으로 중국산 저가 서비스 로봇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청소로봇과 서빙 로봇 시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 높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Mapping 과 데이터를 선점해서 분단국가 내 일종의 기술 장벽을 칠 수 있는 국내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이라고 본다.

서울시는 2026년 세계 TOP3 자율주행 선진 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포티투닷의 상암/여의도/청계/청와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며, 에스더블유엠의 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이다. 특히 25년부터 자율주행택시는 강남 내에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낮 시간대 운행도 개시한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자율주행이 일상이라는 것이 체감될 것으로 본다.

2. 로봇 딜리버리 시장

2024년 로봇 배송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3~4천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연평균 30~40%의 성장률을 지속해서 5년 이내로 1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Target Market인 전체 배송 시장이 30조원이 가까이 된다. 그 중에서 음식 배달 시장은 8~1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한다.

8~10조원의 국내 F&B 배달 시장 규모는:

약 **23만명** 규모의 배달 라이더

라이더의 하루 평균 주문 처리 건수 **4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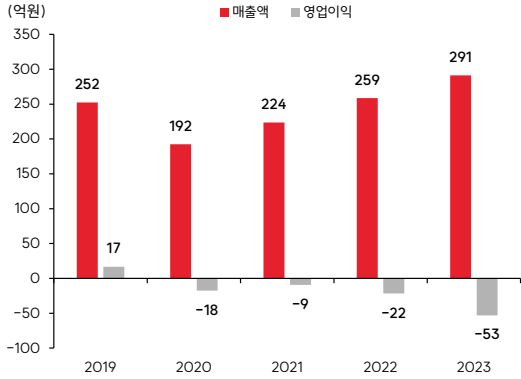
건당 **2,500~3,000 원**의 배달 대행 수수료

배달 라이더/파트너의 **25일** 근무를 가정했다.

물론 '카카오 T 도보배송'으로 근거리 배송 사업을 시도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장하는 것처럼 로봇 배달이 1.2km 이내 근거리 배송을 주로 한다면, 로봇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기존의 60% 수준으로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 단가 하락으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근거리/낮은 객단가 배송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사업의 방향성을 보면 전통시장도 로봇을 활용한 배달을 시작하면서 배달 시장의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거래금액이 높지 않은 동일 지역 내 중고 거래의 경우에도 로봇 배송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외 사례를 보면 로봇이 광고 보드로 사용하는 케이스도 많이 보인다. 따라서 광고도 하나의 중요한 수익 창출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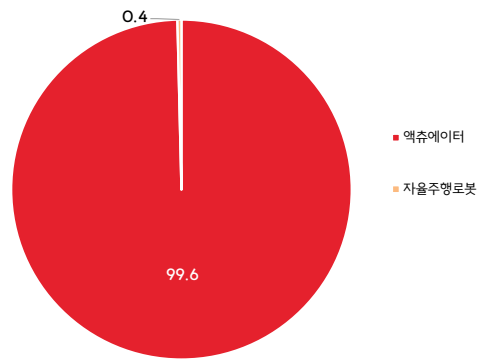
현재 로봇 배달 기업들이 서비스 초기 프로모션으로 배달 건당 0~1,000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비스의 시장에 안착 이후 중장기적으로 배달 건당 2,500 원의 60% 수준인 건당 1,500 원 정도의 수수료 수준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예측한다.

로보티즈 연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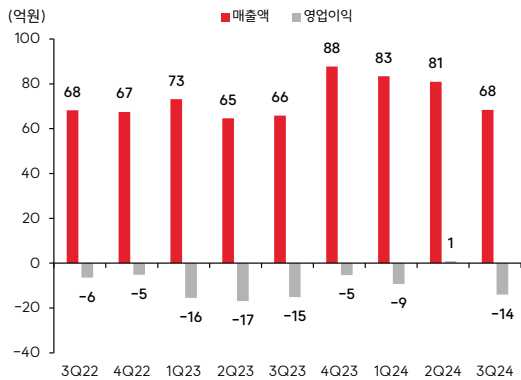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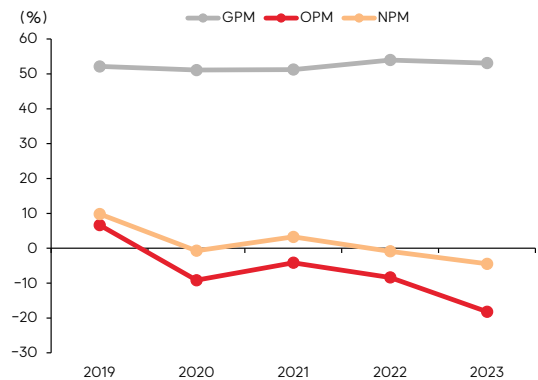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로보티즈 분기별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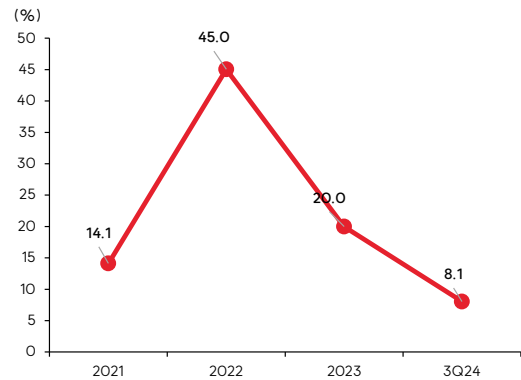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연간 수익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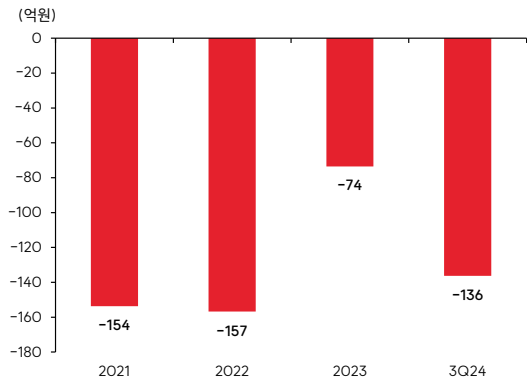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부채비율 추이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순차입금 추이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현재 국내 전국적으로 배달 운행 중인 로봇수가 200 대가 미만으로 추정하는데, 수도권에서 배달 서비스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앞으로 배달의 민족 '딜리' 로봇 확산 속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F&B 배달업계 1위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수개월 내로 서울/수도권 내 지역에서 로봇 배송을 정식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또 로봇을 전세계 딜리버리허어로의 계열사들에 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전개하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이런 흐름 속에서 뉴빌리티는 요기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9월 정식 런칭했고, 현재 송도지역 50대 수준의 FLEET을 2년 내로 2,000대로 늘려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치를 내놨다. 로보티즈도 이런 업계 속도에 발맞춰 자율주행 로봇을 납품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

서울 자율주행 2030 비전 로드맵

서울 자율주행 비전 2030 계획



자료: 서울시, SK 증권

로보티즈, 카카오모빌리티 배송로봇 업무 협약 체결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로보티즈 배달 FLEET(이전 버전)



자료: 언론사, SK 증권

(1) 국내 시장 환경 및 주요 플레이어

국내에는 뉴빌리티/로보티즈/딜리/모빈/디하이브 정도의 로봇 배달 업체가 눈에 띈다. 로보티즈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는 뉴빌리티인 것으로 보인다. 모빈은 라이더를 적용해서 제조원가가 다른 업체들과 많이 차이 나고, 디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업체이다. 우아한형제들 산하 로봇 배달 사업 딜리외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23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뉴빌리티 4.2억원 모빈 1.9억원 로보티즈 1.1억원, 디하이브 2,500만원이고, 영업이익으로는 뉴빌리티 -79.6억원, 모빈, -1.5억원, 로보티즈 -99.4, 디하이브 -3.6억원 등이다. 영업손실은 연구개발비용 집행이 주된 원인이다. 영업손실의 규모가 로보티즈와 유사한 뉴빌리티가 직접적인 경쟁업체라고 판단한다.

24년 10월 기사에 따르면 뉴빌리티의 대표는 올해 매출액이 작년의 약 10배 성장을 전망했다. 이런 내용에 기반하면 올해 매출액이 42억원에 육박할 것이다. 수주액은 약 80억원으로 예상된다(뉴빌리티는 국내/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지역 17개 지역에서 약 70대 운영 중). 배달 수수료로 단기간에 달성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배달 로봇 제품 판매 매출액이라고 본다. 4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이미 달성했다면 기사화된 제조원가를 감안해서 추정해 볼 때 특정업체에게 수백대(280~420대로 추정) 규모의 배달 로봇 '뉴비'를 올해 판매했거나,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추세라면 26년에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주거 단지 서비스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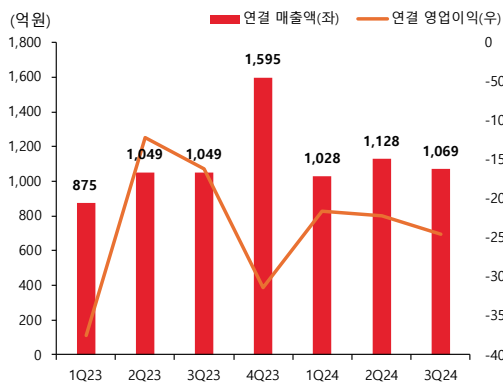
앞으로 주거 단지 생활 서비스 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파트에 로봇이 투입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납품되는 로봇대수가 다른 개별 사이트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 공원, 캠핑장, 골프장은 많아도 수십대 규모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주거단지는 택배, 식음료 딜리버리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수백대가 필요하다. 아파트 내에 로봇이 활동하기 적합한 전용 공간 또한 만들어질 예정이다.

뉴빌리티의 경우 삼성물산이 로봇 배송 서비스를 24년 6월부터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로봇이 공동현관을 진입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입주자 현관 앞까지 배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최근 확대되었다. 25년 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는데, 기술 고도화 이후에는 로봇 서비스가 프리미엄 전략 차원에서 래미안 브랜드 아파트에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모빈이라는 배달 로봇 업체도 현대건설과 손잡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로봇 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빈은 호반건설과도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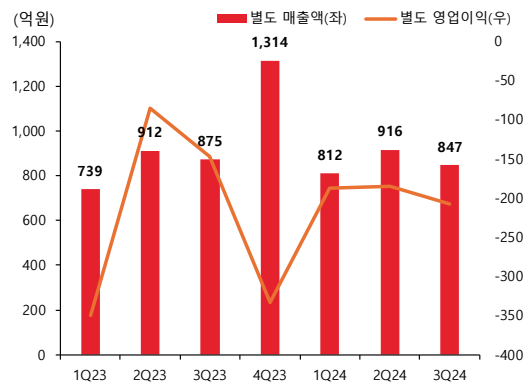
딜리는 한화건설과 함께 신축 공동주택 중에서는 '포레나 영등포'에 로봇 배달 서비스를 이미 적용했다. 배달로봇이 이동할 수 있도록 턱의 단차를 없애고, 모든 여닫이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했다. 또 로봇에 Forena One-Pass Key를 탑재해 아파트 내 이동을 자유롭게 했다. 배달 로봇은 무선통신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한 뒤 층수를 입력해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음식 배달이 완료되면 주문 고객의 핸드폰으로 전화나 메시지가 보내지는 방식이다.

국내 로봇 상장사 합산 연결 실적



자료: Dataguide
 주: 피앤에스미캐닉스/클로봇/에스비비테크/에스피지/로보티즈/
 에브리봇 제외(분석 기업, 부품 기업, 최근 상장으로 분기 실적에 공백이 있는 기업 제외)

국내 로봇 상장사 합산 연결 실적



자료: Dataguide
 주: 피앤에스미캐닉스/클로봇/에스비비테크/에스피지/로보티즈/
 에브리봇 제외(분석 기업, 부품 기업, 최근 상장으로 분기 실적에 공백이 있는 기업 제외)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회피 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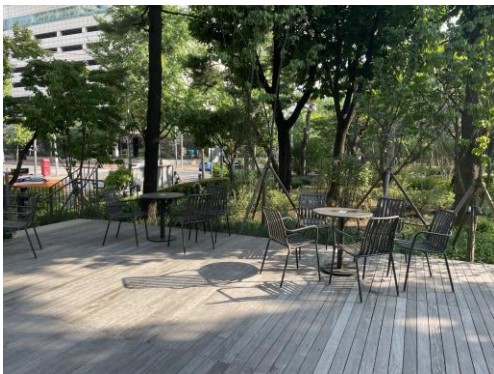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주문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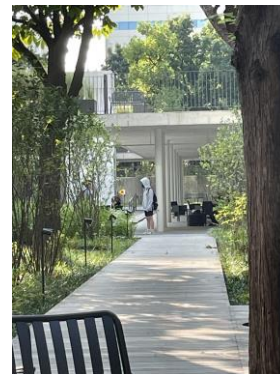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QR 부착 테이블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어린이 주행방해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서비스 지역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쓰레기 수거 로봇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쓰레기 내용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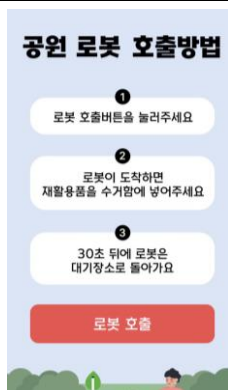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충전 실사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실사 - 스마트폰 호출 인터페이스



자료: SK 증권

로보티즈 마곡 본사 - 주행 대기



자료: SK 증권

양천구 오목공원 로봇 모니터링(로보티즈 본사)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아파트 단지 내 개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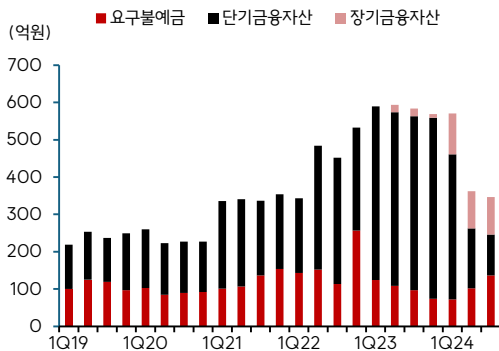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3) 로보티즈 사업 설명 및 시장 포지셔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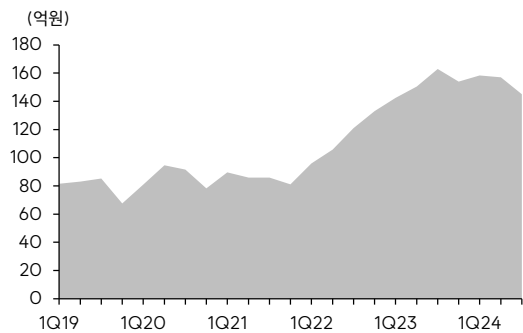
로보티즈는 액츄에이터 사업과 자율주행 사업부분으로 구분된다. 3Q24 누적 기준 실적은 매출액 233 억원, 영업이익 -22 억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액츄에이터 매출액 229 억원, 영업이익 47 억원, 자율주행로봇 매출액 3 억원, 영업적자 -69 억원이다. 자율주행부문 적자 중 상당부분이 연구개발비이며, 액츄에이터 부문 20%대 수준의 이익률이 자율주행 사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로보티즈는 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 내재화율은 약 80% 수준이다.

로보티즈 현금성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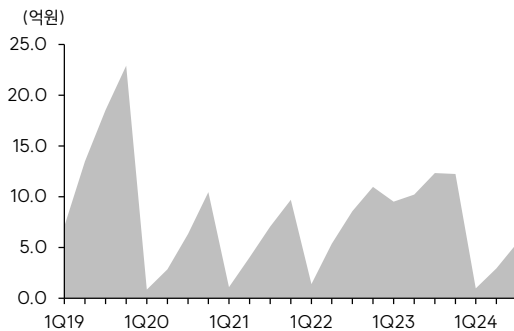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재고자산 규모 추이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정부보조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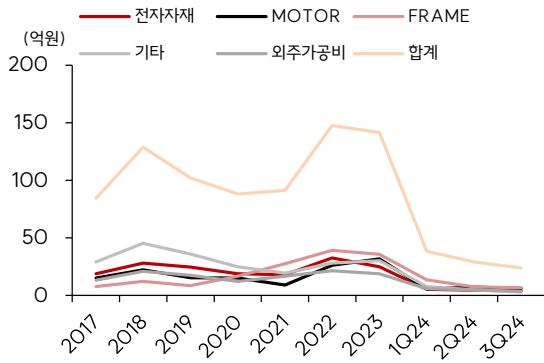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실적 추이

구분	2023	1Q24	2Q24	3Q24
매출액	291	83	81	68
매출원가	137	40	36	28
매출총이익	155	43	45	40
판관비	208	53	44	54
영업이익	-53	-9	1	-14
매출원가율		47.9%	44.2%	41.5%
매출총이익율	53.1%	52.1%	55.8%	58.5%
판관비율	71.3%	63.2%	54.8%	79.1%
영업이익율	-18.2%	-11.1%	1.1%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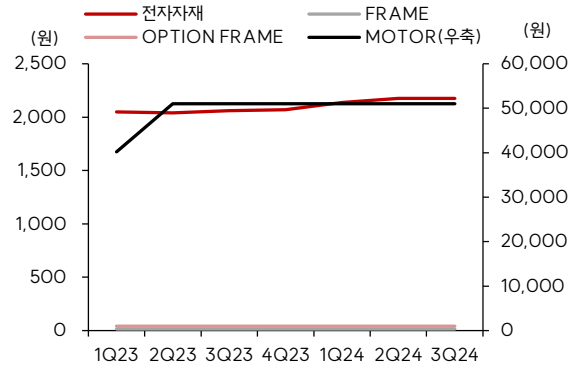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원재료 매입액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원재료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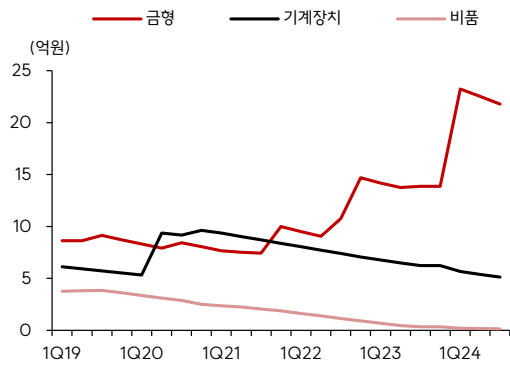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매출액 추이

매출액(억원)	2022	2023	3Q24(누적)
액츄에이터	257.8	290.2	229.3
자율주행로봇	0.8	1.1	3.4
매출액 합산	258.6	291.3	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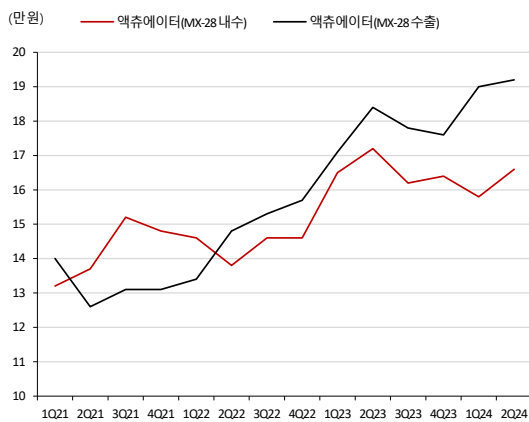
자료: DART, SK 증권

마곡공장 기말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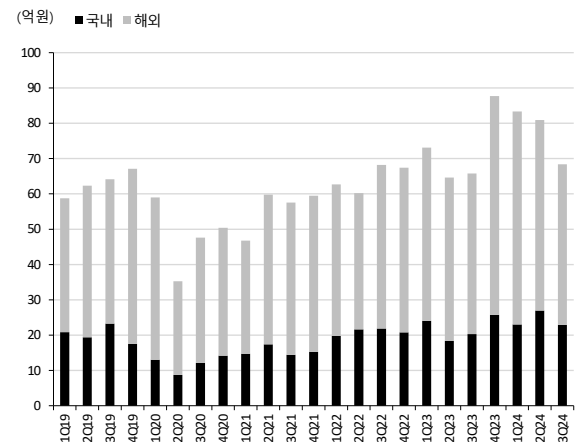
자료: SK 증권

로보티즈 제품/서비스 가격 추이



자료: DART, SK 증권

로보티즈 지역별 매출액 추이



자료: DART,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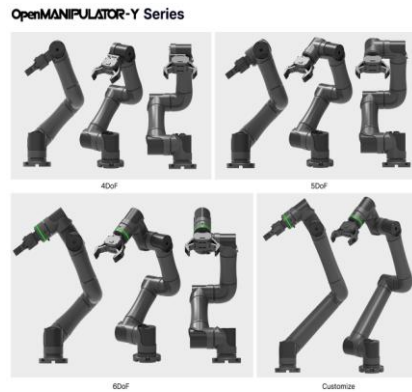
액츄에이터 사업부는 Cycloid 감속기가 주요 제품이다. 현재 국내외 주요 제조업체와 미국/중국 등 해외 대학이 공급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용/연구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러 형태로 로봇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호환 가능한 모듈 형태로 액츄에이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꾸준한 수요에 기반해서 기존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 최근 신규 제품의 Dynamixel Y 출시에 따라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기반한 이익률 레벨업이 예상된다.

Dynamixel 적용 분야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Dynamixel 적용 분야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Dynamixel-Y 구조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Dynamixel 고객사 명단

LG	SAMSUNG	Maxon	KAIST	HARVARD
Intel	Microsoft	NASA	PURDUE UNIV.	Raytheon Technologies
Google	Amazon Lab126	NIKE	SONY	TOYOTA
HYUNDAI	DOOSAN	Disney RESEARCH	UCLA	The Univ. of TOKYO
BMW	KIA	Dyson	VIRGINIA TECH	MIT
UNIVERSAL ROBOTS	APPLE	Ford	Stanford UNIV.	EPFL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자율주행 사업부는 실내로봇(집개미), 실외로봇(일개미)로 구분된다. 현대 FLEET 규모가 60 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집개미는 국내/일본 호텔/정부기관/병원/물류업체, 일개미는 캠핑장/골프장/아파트/공원 등에 투입되었다. 작년엔 약 -100 억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일개미 판매가 향후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자율주행 배달 업체와 차별점이라면 집개미와 일개미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다. NH 와 로보티즈가 주거 단지 안에 로봇 배달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협의하는데, 건물 안에 로봇이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거 단지 내에서 택배를 로봇으로 자동 피킹/적재/적하가 가능한 방향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보티즈가 다관절 로봇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논의 가능한 방향이다.

Stanford University(Dynamixel 용례 1) – 의자정리



자료: Stanford University, SK 증권

Disney Animatronics (Dynamixel 용례 2)



자료: Disney RESEARCH STUDIOS, SK 증권

Disney Animatronics (Dynamixel 용례 3)



자료: Disney RESEARCH STUDIOS, SK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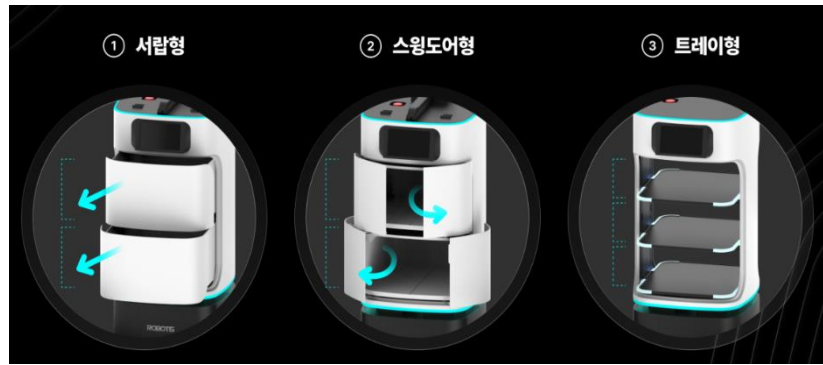
집개미 고객사 명단

Hennna Hotel	MIDAS HOTEL& RESORT	KANGWON LAND	서울특별시	WESTIN HOTEL& RESORT
MAYFIELD HOTEL& RESORT	KENSINGTON HOTEL	JAYU CONTRY CLUB	한국로봇 산업진흥원	HYATT
COURTYARD Seoul Times Square	KENSINGTON RESORT	Hilton Garden Inn	현대글로벌베어터	HennnaHotel Laguna Ten Bosch
NOVOTEL	GLAD HOTEL& RESORTS	서울유치법	롯데글로벌 로지스	THERISE
AnantiHilton BUSAN	Marriott HOTEL- RESORTS- SUITES	IPARK	TKE	SHONAN KAMAKURA GENERAL HOSPITAL
Ibis Ibis STYLES	KENT HOTEL	PANDA CARAVAN	양천구	HIS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지금 로보티즈의 연간 개미 생산 가능 CAPA 는 1,000 대 수준으로 보는데, 올해 말까지 100~200 대 개미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전자/양천구청 등 납품 물량일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더 기대되는건 주거 단지 서비스로봇이다. 25년 하반기에 관련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집개미 수납 옵션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집개미 기능 및 특징

자율주행	맞춤형 보관함	다용도 매니플레이션	사용자 앱(APP)
 <p>사람과 사물을 스스로 안전하게 회피하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 합니다.</p>	 <p>주문 제작이 가능한 보관함에 물품을 안전하게 넣고, 2 곳까지 연속 배송 가능합니다.</p>	 <p>3D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팔로 버튼 누르기, 카드 태그, 노크 등이 가능합니다.</p>	 <p>집개미 전용 앱으로 로봇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을 위한 주문을 지원합니다.</p>
맞춤형 디자인	층간 이동	터치스크린	자동 복귀 및 충전
 <p>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게 로봇의 스킨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p>	 <p>로봇 팔이나 무선통신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p>	 <p>다국어(한, 중, 일, 영) 음성 서비스와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성이 편리합니다.</p>	 <p>서비스가 완료되면 충전 스테이션으로 자동 복귀하여 대기합니다.</p>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3. 로봇 실적 추정 및 밸류에이션

(1) 실적 추정치

로봇 실적 추정표(억원)								
구분	1Q24	2Q24	3Q24	4Q24E	1Q25E	2Q25E	3Q25E	4Q25E
매출액	83	81	68	88	93	87	75	158
성장률(YoY%)	14.0%	25.2%	3.9%	0.2%	11.0%	7.6%	9.4%	80.0%
성장률(QoQ%)	-4.9%	-2.9%	-15.5%	28.5%	5.3%	-5.9%	-14.1%	111.4%
매출원가	40	36	28	38	45	41	33	73
매출 원가율(%)	47.9%	44.2%	41.5%	42.8%	49.0%	46.7%	44.6%	45.9%
매출총이익(손실)	43	45	40	50	47	46	41	86
매출총이익률(%)	52.1%	55.8%	58.5%	57.2%	51.0%	53.3%	55.4%	54.1%
판매비와관리비	53	44	54	55	59	56	51	67
판매 비율(%)	63.2%	54.8%	79.1%	62.3%	63.9%	64.7%	68.8%	42.4%
인건비	11	11	10	11	13	12	12	10
유무형자산상각비	2	2	2	2	2	2	2	3
연구개발비	27	21	26	28	29	28	26	30
광고선전비	2	1	2	2	2	2	2	3
판매비	3	3	2	3	3	3	2	5
관리비	8	6	7	8	8	8	7	14
기타원가성비용	0	0	0	0	0	0	0	0
기타	1	1	1	1	1	1	1	1
영업이익(손실)	-9	1	-14	-4	-12	-10	-10	19
성장률(YoY%)	-40.5%	-105.1%	-7.4%	-16.9%	29.3%	-1236.7%	-28.6%	-516.2%
성장률(QoQ%)	71.8%	-109.4%	-1719.0%	-68.1%	167.2%	-17.5%	1.7%	-285.7%
영업이익률(%)	-11.1%	1.1%	-20.5%	-5.1%	-12.9%	-11.3%	-13.4%	11.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5	-17	-14	-2	-29	-28	-11	17
당기순이익(손실)	-26	-4	-15	-2	-23	-23	-8	14
(당기순이익귀속)지배기업주주지분	-27	-4	-15	-2	-20	-19	-7	12

자료: 로봇티즈, SK 증권

(2) 밸류에이션 멀티플

PSR Table				
구분/연도	2020	2021	2022	2023
티로보틱스	1.3	3.2	1.6	4.8
유진로봇	1.9	7.5	3.3	13.9
로보로보	17.4	15.1	11.4	6.7
큐렉스	5.3	5.8	3.7	10.5
휴림로봇	7.0	5.9	5.1	2.9
로보스타	1.4	1.8	1.3	2.8
뉴로메카	-	-	11.2	28.2
레인보우로보틱스				116.5
엔젤로보틱스				39.5
피앤에스미캐닉스				9.6

자료: Dart, Dataguide

주: 레인보우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피앤에스미캐닉스 등은 최근 시총/23년도 매출액의 비율

실외 이동로봇 개미 실사



자료: ZDNET Korea, SK 증권

2023년 로봇업체 평균 PSR

	AMR	서비스	의료	산업용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평균
로봇 업체	9.4	6.7	10.5	11.3	223.1	8.0	44.8
로보티즈 해당 산업	X	O	X	O	X	O	8.66

자료: Dart, Dataguide, SK 증권

국내 자율주행 업체 평균 PSR

국내 자율주행 연관 업체	사업부문	2023년 PSR
라이قم	하드웨어(광모듈 라이다 센서)	4.2
스마트레이더시스템	하드웨어(레이더)	66.1
에스피지	하드웨어(구동부품)	2.0
에스비비테크	하드웨어(구동부품)	47.5
퓨런티어	소프트웨어(카메라 센싱 장비)	5.9
에스오에스랩	소프트웨어(라이다 솔루션)	35.3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레이더이벤트기록장치/ADAS 등)	1.9
모트렉스	소프트웨어(HUD/ADAS 등)	0.8
슈어소프트테크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검증)	5.8
오비고	소프트웨어(차량 MAP&인터페이스)	8.4
평균치	하드웨어 평균	29.9
	소프트웨어 평균	9.7
2023년 PSR	Total	17.8

자료: Dart, Dataguide

주: 에스오에스랩은 최근 시총/23년도 매출액의 비율

Peer Group 1 Valuation						
구분		A370090	A464080	A388790	A424960	A087260
		퓨런티어	에스오에스랩	라이콤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시가총액 (억원)		2,376	1,446	1,011	1,778	73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억원)	465	41	195	41	498
	영업이익 (억원)	72	-83	-21	-54	5
PER (배)	2021	-	-	-	-	53.60
	2022	72.14	-	-	-	42.89
	2023	36.20	-	-	-	44.27
	2024E	103.64	-	-	-	-
	2025E	36.51	-	-	52.90	-
PBR (배)	2021	-	-	-	-	3.07
	2022	3.82	-	-	-	1.96
	2023	5.57	-	3.32	14.02	1.94
	2024E	4.61	12.45	-	-	-
	2025E	3.95	12.67	-	-	-
PSR (배)	2021	-	-	-	-	2.81
	2022	5.31	-	-	-	1.72
	2023	5.85	-	4.15	66.08	1.88
	2024E	7.54	15.73	-	34.98	-
	2025E	5.84	5.15	-	8.73	-
EV/EBITDA (배)	2021	-	-	-	-	31.33
	2022	58.62	-	-	-	72.29
	2023	33.18	-	-	-	37.96
	2024E	-	-	-	-	-
	2025E	-	-	-	-	-
ROE (%)	2021	29.55	-	26.37	완전잠식	5.89
	2022	7.74	완전잠식	24.39	완전잠식	4.70
	2023	17.20	완전잠식	-27.51	-33.69	4.47
	2024E	4.19	-51.94	-	-	-
	2025E	15.36	-1.72	-	-	-
ROA (%)	2021	20.22	-	15.91	-31.10	3.19
	2022	5.94	-206.70	16.05	-53.80	2.76
	2023	13.79	28.56	-20.47	-26.52	2.76
	2024E	3.71	-37.78	-	-	-
	2025E	10.03	-1.08	-	-	-

자료: DataGuide, DART, 각 사, SK 증권

Peer Group 2 Valuation						
구분		A058610	A389500	A118990	A298830	A352910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모트렉스	슈어소프트테크	오비고
시가총액 (억원)		4,912	968	2,834	2,597	830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억원)	3,938	51	5,310	633	151
	영업이익 (억원)	160	-56	532	115	-5
PER (배)	2021	11.47	-	22.93	-	-
	2022	19.38	-	8.65	-	-
	2023	72.61	-	13.64	72.09	317.78
	2024E	24.47	48.64	6.22	-	36.95
	2025E	19.73	-	7.18	16.21	25.16
PBR (배)	2021	1.34	-	1.90	-	7.87
	2022	1.79	4.81	1.85	-	3.29
	2023	3.65	20.98	2.11	4.37	3.46
	2024E	2.01	23.50	1.40	-	-
	2025E	1.82	-	1.21	-	-
PSR (배)	2021	0.63	-	0.61	-	24.96
	2022	0.87	12.08	0.59	-	9.99
	2023	2.03	47.45	0.84	5.76	8.42
	2024E	1.09	6.93	0.51	2.91	5.83
	2025E	0.98	-	0.45	2.81	4.95
EV/EBITDA (배)	2021	11.56	-	8.56	0.02	-
	2022	13.52	-	6.20	0.01	-
	2023	36.61	-	8.15	27.82	213.04
	2024E	16.73	-	4.25	-	-
	2025E	13.90	-	4.26	-	-
ROE (%)	2021	13.57	-67.25	9.53	19.96	-42.66
	2022	9.68	-36.75	24.89	18.55	-8.31
	2023	5.09	-65.40	16.57	7.64	1.11
	2024E	10.11	63.69	25.15	-	-
	2025E	12.10	-	18.22	-	-
ROA (%)	2021	7.01	-17.26	2.63	11.75	-26.52
	2022	5.47	-21.77	8.02	10.93	-7.04
	2023	3.14	-25.83	6.09	4.54	1.00
	2024E	5.41	19.96	11.03	-	-
	2025E	6.33	-	8.99	-	-

자료: DataGuide, DART, 각 사, SK 증권

해외 자율주행 관련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

구분	MBLY US Equity	CONGR equity	INVZ US Equity	TSLA US Equity	BIDU US Equity	
	Mobileye Global	Continental	Innoviz Technologies Ltd	Tesla	Baidu Apollo	
시가총액 (천억달러)	140	121	1	10,902	286	
매출액(억원)	2022	24,154	535,080	78	1,052,772	237,217
	2023	27,166	585,284	273	1,264,503	248,306
	2024E	22,976	592,818	352	1,393,314	258,788
	2025E	27,332	610,457	1,110	1,622,650	271,806
영업이익(억원)	2022	-478	9,864	-1,723	176,483	30,518
	2023	-431	25,538	-1,733	116,176	40,320
	2024E	2,499	36,529	-1,508	115,864	48,140
	2025E	4,798	43,102	-1,491	167,205	51,379
영업이익률(%)	2022	영업적자	0.02	영업적자	0.17	0.13
	2023	영업적자	0.04	영업적자	0.09	0.16
	2024E	0.11	0.06	영업적자	0.08	0.19
	2025E	0.18	0.07	영업적자	0.10	0.19
순이익(억원)	2022	-1,060	904	-1,640	162,267	14,499
	2023	-353	16,340	-1,613	195,961	37,477
	2024E	2,594	21,282	-1,341	115,299	50,131
	2025E	4,428	27,366	-1,370	158,749	52,051
P/E	2022	-	169.64	-	33.66	21.10
	2023	-	13.31	-	95.60	16.47
	2024E	75.83	8.37	-	139.48	7.73
	2025E	48.43	6.56	-	103.49	6.19
P/B	2022	1.90	0.84	2.79	8.72	1.22
	2023	2.34	1.12	2.73	12.64	1.22
	2024E	1.16	0.84	1.20	15.74	0.78
	2025E	1.17	0.78	1.56	13.67	0.71
ROE	2022	-0.53	0.52	-51.70	33.53	3.48
	2023	-0.18	8.59	-71.50	27.94	8.39
	2024E	1.36	10.18	-69.12	11.37	8.46
	2025E	2.98	12.07	-98.83	13.06	7.88
EV/EBITA	2022	51.22	5.46	-	20.58	6.97
	2023	70.34	5.44	-	52.54	4.09
	2024E	53.69	3.44	-	71.01	3.73
	2025E	31.11	2.99	-	52.94	3.38

자료: Bloomberg 공시기준, 각 사, SK 증권

로보티즈 2025년 추정 매출액 412 억원에 로봇 업종 평균 PSR 8.66(2023년 서비스 + 산업용 + 소프트웨어 업체 평균 기준)을 적용, 목표주가 27,000 원을 제시하고 투자 의견 매수로 신규 커버한다. 대부분 로봇 업체가 적자 상태에 있지만, 향후 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PS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게 되었다. 현재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매출액은 미미한 상황이지만, 2025년부터는 실적이 기대된다. 해외 시장에서 성장 사례, 업계의 생산 스케줄, 협력 업체들간의 제휴 등을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자율주행 사업부문이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2025년부터 자율주행 관련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로봇 산업의 멀티플 대비 자율주행 업체들의 평균 멀티플이 2 배 가량 높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따라서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희소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주가도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로보티즈 밸류에이션

PSR Valuation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E	2025E
매출액(억원)	252	192	224	259	291	321	412
영업이익(억원)	17	-18	-9	-22	-53	-27	-13
지배주주 순이익(억원)	24	-4	9	0	-12	-46	-41
영업이익률(%)	6.7%	-9.2%	-4.2%	-8.4%	-18.2%	-8.4%	-3.2%
PSR(배)	5.53	8.04	12.55	10.47	13.53	-	-
적정 PSR	국내 서비스 + 산업용 + 소프트웨어 로봇 업체 평균 PSR					8.66배	8.66배
적정 시가총액						2,780 억원	3,568 억원
목표주가(원)						21,000 원	27,000 원
증가(11월 29일)						21,800 원	
상승여력						-3.7%	23.9%

자료: 로보티즈, SK 증권

재무상태표

12월 결산(억원)	2022	2023	2024E	2025E	2026E
유동자산	907	812	999	1,195	1,332
현금및현금성자산	257	74	170	128	3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	37	41	53	64
재고자산	133	154	169	218	265
비유동자산	321	338	249	235	223
장기금융자산	14	10	11	14	17
유형자산	258	257	169	153	139
무형자산	11	10	8	7	6
자산총계	1,228	1,150	1,249	1,430	1,556
유동부채	165	188	238	353	430
단기금융부채	128	156	203	304	37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	12	13	16	20
단기충당부채	0	0	0	1	1
비유동부채	217	4	100	200	250
장기금융부채	208	0	100	200	25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	4	4	4	50
장기충당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381	192	338	553	680
지배주주지분	842	951	903	874	873
자본금	61	64	64	64	64
자본잉여금	630	749	749	749	749
기타자본구성요소	-22	-23	-23	-23	-23
자기주식	-30	-30	-30	-30	-30
이익잉여금	170	157	109	74	73
비지배주주지분	5	8	8	3	2
자본총계	847	958	911	877	876
부채외자본총계	1,228	1,150	1,249	1,430	1,556

현금흐름표

12월 결산(억원)	2022	2023	2024E	2025E	2026E
영업활동현금흐름	125	-47	-30	-66	-44
당기순이익(손실)	-2	-13	-47	-41	-1
비현금성항목등	9	-0	-43	4	5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0	23	18	16	14
무형자산상각비	2	2	2	1	1
기타	-13	-25	-63	-13	37
운전자본감소(증가)	116	-48	-17	-49	-51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증가)	3	-13	-4	-12	-11
재고자산의감소(증가)	-50	-28	-15	-49	-47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감소)	2	2	1	4	4
기타	-1	11	173	70	-43
법인세납부	-3	-2	95	51	1
투자활동현금흐름	-306	-43	-69	-172	-159
금융자산의감소(증가)	-269	0	-54	-168	-163
유형자산의감소(증가)	-35	-22	0	0	0
무형자산의감소(증가)	-2	-1	0	0	0
기타	0	-20	-16	-3	4
재무활동현금흐름	284	-93	147	201	116
단기금융부채의증가(감소)	0	-100	47	101	66
장기금융부채의증가(감소)	250	-0	100	100	50
자본의증가(감소)	173	122	0	0	0
배당금지급	0	0	0	0	0
기타	-139	-115	-0	0	0
현금의 증가(감소)	103	-183	96	-42	-92
기초현금	154	257	74	170	128
기말현금	257	74	170	128	36
FCF	90	-70	-30	-66	-44

자료 : 로보티즈, SK증권 추정

포괄손익계산서

12월 결산(억원)	2022	2023	2024E	2025E	2026E
12월 결산(억원)					
매출액	259	291	321	412	502
매출원가	119	137	142	192	230
매출총이익	140	155	179	221	272
매출총이익률(%)	54.0	53.1	55.8	53.5	54.1
판매비와 관리비	161	208	206	234	235
영업이익	-22	-53	-27	-13	37
영업이익률(%)	-8.4	-18.2	-8.4	-3.2	7.4
비영업손익	5	27	-31	-38	-38
순금융손익	-2	5	-16	-31	-45
외환관련손익	0	-0	-15	-6	7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6	-26	-58	-51	-1
세전계속사업이익률(%)	-6.3	-9.0	-18.2	-12.3	-0.2
계속사업법인세	-14	-13	-95	-51	-1
계속사업이익	-2	-13	-47	-41	-1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법인세효과	0	0	0	0	0
당기순이익	-2	-13	-47	-41	-1
순이익률(%)	-0.9	-4.5	-14.8	-9.8	-0.2
지배주주	-3	-14	-48	-35	-1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1.0	-4.6	-14.9	-8.5	-0.2
비지배주주	0	1	0	-6	-0
총포괄이익	0	-12	-47	-35	-1
지배주주	-0	-13	-49	-36	-1
비지배주주	1	1	2	1	0
EBITDA	0	-28	-7	4	52

주요투자지표

12월 결산(억원)	2022	2023	2024E	2025E	2026E
성장성 (%)					
매출액	156	127	100	28.7	21.6
영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흑전
세전계속사업이익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EBITDA	-96.7	적전	적지	흑전	1,161.5
EPS	적전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수익성 (%)					
ROA	-0.2	-1.1	-3.9	-3.0	-0.1
ROE	-0.3	-1.5	-5.2	-3.9	-0.1
EBITDA마진	0.1	-9.5	-2.2	1.0	10.4
안정성 (%)					
유동비율	550.8	432.5	420.5	338.0	310.0
부채비율	45.0	20.0	37.1	63.1	77.6
순차입금/자기자본	-48.4	-47.1	-49.8	-43.3	-38.2
EBITDA/이자비용(배)	0.0	-1.5	-0.3	0.1	1.0
배당성향	0.0	0.0	0.0	0.0	0.0
주당지표 (원)					
EPS(계속사업)	-21	-105	-364	-266	-6
BPS	7,151	7,607	7,103	6,883	6,878
CFPS	159	92	-213	-134	109
주당 현금배당금	0	0	0	0	0
Valuation지표 (배)					
PER	-1,056.5	-291.8	-59.8	-82.0	-3,532.6
PBR	3.1	4.0	3.1	3.2	3.2
PCR	141.5	331.6	-102.3	-162.9	199.2
EV/EBITDA	6,191.2	-125.6	-342.5	596.2	48.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일시	투자의견	목표주가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4.12.02	매수	27,000원	6개월		



Compliance Notice

작성자(박찬술)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12월 02일 기준)

매수	96.86%	중립	3.14%	매도	0.00%
----	--------	----	-------	----	-------